

쌍꺼풀성형술을 원하는 여성의 자아주체성*

최 영** · 이미숙** · 이무석**

Ego-Identity of Women Seeking Double Eyelid Operation*

Young Choi, M.D.,** Mi-Suk Lee, M.D.,** Moo-Suk Lee,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2(1) : 80-87, 1994 —

Objective : Cosmetic surgery, as a psychosocial intervention, is unique in that its foundation rests solely on the individual motivations, internal or external, of the patient. We investigated the ego-identity in women who seek double eyelid operation, to understand one aspect of internal motivation for cosmetic surgery.

Methods :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7 young women, visited to plastic surgery clinics in Kwangju from June 1993 to October 1993, and 58 women who did not want double eyelid operation were chosen as controls. Each subject's ego-identity was scored using Dignan's ego-identity scale.

Results : The total and stability subscale's scores of ego-identity of double eyelid opera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Conclusion : More psychosocial research on the ego-identity of patients seeking double eyelid operation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otives for requesting surgery.

KEY WORDS : Double eyelid operation · Ego-identity.

서 론

자문조정 정신의학의 임상실제를 통하여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본 연구는 1993년도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소의 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졌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1993) from Research Institute of Clinical Medicine, Chonnam University Hospital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이루어졌다(Wengle 1986). 미용성형수술(cosmetic plastic surgery)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정신병적 경향, 신경증적 경향, 성격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가 보고된 바 있으며(Macgregor 1982 ; Pertschuk 1991), 특히 정신분열증, 신체추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자기애적 인격장애 환자의 경우 미용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정신과적 예비평가가 필요하다(Brook 1971 ; Marcus 1984 ; Olley 1974).

Wengle(1986)은 성형수술은 신체에 대한 자기평가, 자기확신, 대인관계의 질, 성적 매력, 스트

레스에 대한 대응 등을 개선시켜, 한 개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미용성형수술은 신체적 복원 혹은 재건과 함께 정신적 만족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일종의 정신사회적 증재(psychosocial intervention)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정신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동기, 성격구조, 정신병리, 수술시행 후의 만족도, 수술 후의 정신의학적 후유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Berscheid와 Ganstad 1982; Pertschuk 1991).

미용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정신병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내면의 정신적 문제의 결과로서 환자들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었다(Wengle 1986). 심각한 기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모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Berscheid와 Ganstad 1982). 1940~1950년대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미용성형수술을,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적인 조작을 통해서 내적인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았고(Hill과 Silver 1950, Linn과 Goldman 1949),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는 미용성형수술환자의 2/3 정도가 정신과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Edgerton 등 1960).

1970년대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결과에 비해 보다 적은 비율인 안면성형술 환자의 40% 정도에서 정신과적 진단이 내려지기 시작했으며(Hay와 Heather 1973), 미용성형수술의 동기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졌다. 즉, 매력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은 특정한 문화에서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가치를 부여 받는다는 관점에서, 미용성형수술의 동기를 긍정적인 자기개념, 자기확신, 자기주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보다 현대적 접근이 시도되었다(Kalick 1982).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안면성형수술 시행환자의 1/3 정도에서 정서적 문제가 있다(Goin 등 1980)고 보고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신과적 진단이 적게 내려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정신병리에 초점을 둔 정신분석적 사고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여 보다 객관적 진단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 자체의 변화, 즉 보다 많은 “정상인”들이 미용성형수술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Pertschuk 1991; Wengle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의 동기를 외적 동기(external motivation)와 내적 동기(internal motivation)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는데, 외적 동기는 외모의 향상을 통해 이성관계를 좋게 하는 것과 같은 대인관계의 증진, 승진과 같은 사회적 성취를 얻는 것(Adams, 1977)이고, 내적 동기는 자존심(self-esteem)과 자기상(self-image)의 개선, 전체적 주체성(identity)의 재구성, 그리고 내적 우울의 해소 등(Edgerton과 Knor 1971; Burk 등 1987; Goin과 Goin 1988; Pertschuk 1991)이 제시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서양에서 주로 코성형술(rhinoplasty)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게 가장 많이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로 알려진 쌍꺼풀 성형술(정규환 1980; Kobayashi와 Shirakabe 1991)의 정신과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미용을 목적으로 쌍꺼풀성형술을 시행하고자 성형외과를 방문한 젊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해당되는 자아주체성(ego-identity)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93년 7월부터 동년 10월 사이에 쌍꺼풀성형술을 목적으로 광주시내의 성형외과를 방문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수술동기를 단일화하기 위해 순수한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스스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18세부터 29세사이의 광주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정시켰다. 미용이외의 목적을 가진 경우, 주로 타인의 권유에 의해 수술이 결정된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신체적 병력이 있는 경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알콜리즘 혹은 약물남용력이 있는 경우와 설문지에 대한 반응이 불충실한 경우는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기준에 의해 총 60명 중 최종 47명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조군은 쌍꺼풀 수술군과 동일한 인구학적 변인을 가진 미혼 여성으로서, 쌍꺼풀이 없고 앞으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대상자를 선택했으며, 배제기준은 정신과 방문력과 신체적 병력을 가진 경우였다. 총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시행하여 응답이 불충실한 2명을 제외한 58명이 대조군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 연구 방법

쌍꺼풀 수술을 위해 내원한 대상 여성들이 성형외과의사와 초진 후 수술예약을 하는 시점에서 정신의학적인 면접을 실시하여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사회경제적 상태, 수술의 동기, 권유자, 정신과적 병력, 신체적 병력을 조사하였고, 고병학등(1981)이 분류한 생활사건의 7가지 범주를 제시하여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생활사건(life events)의 경험여부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연구대상의 자아주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Dignan(1965)의 Ego-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자아주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주체성 척도는 4점 척도로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하위척도 즉, 안정성(stability), 목표지향성(goal-directedness), 독특성(uniqueness), 대인역할기대(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주장(self-assertiveness), 자기존재의식(sense of self), 그리고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포함하고 있다.

안정성은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속에서 일관된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 목표지향성은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고 자기의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독특성은 현재의 능력과 신체적, 심리적 특성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 대인역할기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상이한 여러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다소 일시적이고 특정한 여러가지 자아상, 자기수용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아상, 자기주장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자기존재의식은 자기존재와 자신의 심리신체적 특성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대인관계는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양군간의 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주체성 척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χ^2 -검정, t-검정과 공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SPSS PC+를 이용해 전산처리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자료

연구대상들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제적 상태 등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인에 있어서는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은 최저 18세에서 최고 27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쌍꺼풀성형술군에서 22.19(± 4.69)세, 대조군은 23.05(± 4.59)세였고, 교육정도는 대상군이 13.95(± 2.02)년, 대조군이 14.13(± 1.87)로 거의 대부분이 고졸이상이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생활사건은 쌍꺼풀군 중 20명(42.6%), 대조군 중 30명(51.7%)이 경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쌍꺼풀 수술군과 대조군의 자아주체성

대상군과 대조군 사이의 자아주체성 척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Table 2) 전체 점수가 대상군이 평균 점수 165.61(± 12.66), 대조군이 170.93(± 12.69)로서, 미용을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시행받고자 하는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t = -2.14, p = 0.035$). 각 하위 척도별로 비교해 보면 안정성에서 쌍꺼풀군에서는 평균 19.36(± 3.59), 대조군에서는 22.13(± 2.78)으로 쌍꺼풀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 = -4.46, p = .001$).

3. 생활사건의 경험 여부와 자아주체성

연구대상들의 생활사건의 경험 여부에 따라 자아주체성척도 점수를 비교해보면(Table 3), 최근 생활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50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55명이었다. 그들의 연령, 직업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Double Eyelid Group	Control Group
	N=47	N=58
	Mean \pm SD	Mean \pm SD
Age(year)	22.19 \pm 4.69	23.05 \pm 4.59
Education(year)	13.96 \pm 2.02	14.13 \pm 1.88
Occupation		
Student	16(34.0%)	17(29.3%)
Office worker	11(23.4%)	15(25.9%)
Public official	8(17.0%)	14(24.1%)
Service	4(8.5%)	7(12.1%)
Others 8(17.0%)	5(8.6%)	
Economic condition		
Low class	0	3(5.2%)
Middle class	46(97.9%)	54(93.1%)
High class	1(2.1%)	1(1.7%)
Life event		
Yes	20(42.6%)	30(51.7%)
No	27(57.4%)	28(48.3%)

Table 2. Comparison of ego-identity scale scores between double-eyelid operation group and control group

	Double Eyelid Group	Control Group	t	df	p
	N=47	N=58			
	Mean \pm SD	Mean \pm SD			
Stability	19.36 \pm 3.59	22.13 \pm 2.78	-4.46	103	.001
Goal directedness	21.80 \pm 4.72	22.44 \pm 3.88	-.76	103	.448
Uniqueness	20.42 \pm 3.03	20.10 \pm 2.94	.55	103	.583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21.51 \pm 2.97	22.01 \pm 2.85	-.89	103	.375
Self acceptance	18.63 \pm 3.65	19.58 \pm 3.57	-1.34	103	.184
Self assertiveness	19.65 \pm 3.23	20.08 \pm 3.35	-.65	103	.515
Sense of self	21.23 \pm 4.32	22.22 \pm 4.19	-1.19	103	.2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02 \pm 3.51	22.03 \pm 3.35	1.47	103	.146
Total score	165.61 \pm 12.66	170.93 \pm 12.69	-2.14		.035

Table 3. Comparison of ego-identity scores between subjects with life events and subjects without life events

	Life event(+)	Life event(-)	t	df	p
	N=50	N=55			
	Mean \pm SD	Mean \pm SD			
Stability	20.54 \pm 3.53	21.21 \pm 3.37	-1.01	103	.316
Goal directedness	21.14 \pm 3.99	23.09 \pm 4.33	-2.39	103	.019
Uniqueness	21.38 \pm 2.79	19.21 \pm 2.76	3.98	103	.001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20.82 \pm 2.83	22.67 \pm 2.69	-3.43	103	.001
Self acceptance	18.40 \pm 3.40	19.85 \pm 3.07	-2.09	103	.039
Self assertiveness	20.02 \pm 3.60	19.78 \pm 3.07	.37	103	.715
Sense of self	20.14 \pm 4.33	23.27 \pm 3.62	-4.03	103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72 \pm 3.40	22.25 \pm 3.50	.69	103	.492
Total score	165.36 \pm 12.17	171.45 \pm 12.95	-2.48		.015

Table 4. Comparison of ego-identity scores between double eyelid operation group and control group

	Double Eyelid Group	Control Group	F	p*
	N=47	N=58		
	Mean ± SD	Mean ± SD		
Stability	19.36 ± 3.59	22.13 ± 2.78	21.241	.001
Goal directedness	21.80 ± 4.72	22.44 ± 3.88	1.005	.318
Uniqueness	20.42 ± 3.03	20.10 ± 2.94	.915	.341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21.51 ± 2.97	22.01 ± 2.85	1.580	.212
Self acceptance	18.63 ± 3.65	19.58 ± 3.57	2.443	.121
Self assertiveness	19.65 ± 3.23	20.08 ± 3.35	.384	.537
Sense of self	21.23 ± 4.32	22.22 ± 4.19	2.747	.1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02 ± 3.51	22.03 ± 3.35	2.353	.128
Total score	165.61 ± 12.66	170.93 ± 12.69	5.975	.016

* By analysis of covariance, to remove the effects of life event

생활사건을 경험했던 집단에서 자아주체성 전체 평균 득점이 165.36(±12.17), 경험하지 않은 군이 171.45(±12.95)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 = -2.48, p = .015$). 하위 척도별로 보면 목표지향성($t = -2.39, p = .019$), 대인역할기대($t = -3.43, p = .001$), 자기수용($t = -2.09, p = .039$), 그리고 자기존재의식($t = -4.03, p = .001$)의 점수가 생활사건을 경험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독특성($t = 3.98, p = .001$)의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

4. 생활사건 경험의 영향을 배제하고 평가한 쌍꺼풀 수술군과 대조군의 자아주체성

자아주체성 척도 점수에 대한 생활 사건의 영향을 통제하고 쌍꺼풀군과 대조군의 자아주체성 전체점수를 비교분석했을 때에도(공변량분석), 쌍꺼풀군의 전체척도($F = 5.975, p = .016$), 하위척도 중 안정성($F = 21.241, p = .001$)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고 찰

Erikson(1959, 1968)은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독특한 자아이론을 전개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가미하여, 자아주체성(ego-identity)을 시간의 경과 속에서 유지되는 동질감(sameness)과 연속성(continuity)에 기초한 주관적 측면의 개인적 주체성(personal identity)과 자신과 관계가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일치성에 기초한 객관적 측면의 심리사회적 주체성(psychosocial identity)으로 설명했다. 본 교실에서는 정신

분열증과 신경증적 장애환자들의 자아주체성을 연구한 바 있는데(하형욱 1984; 최영 1986), 치료자가 대상 환자의 주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신과적 문제의 감별진단, 예후의 판단과 치료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Akhtar 1984).

미용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측면의 연구들로는 미용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동기(Hill과 Silver 1950; Pertschuk 1991), 신체상(body image)(Belfer 등 1982; Goin과 Goin 1986; Goin과 Goin 1988), 성격구조(윤근철 등 1984; 한상준 등 1991; 안재훈 등 1993), 정신병리(정규한 1980), 수술시행 후의 만족도(Goin 등 1980; 한명호와 권성택 1992), 수술 후 정신의학적 후유장애의 발생(Hay와 Heather 1973)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본 연구는 수술에 대한 동기, 특히 내적인 동기와 연관된 연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을 쌍꺼풀성형술을 시행받고자 스스로 결정한 젊은 성인 여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쌍꺼풀성형술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에게서 가장 많이 시술되는 미용성형술이다(Kobayashi 1991; 정규한 1980). 이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미에 관한 기준이 변화되고 있으며,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여 눈의 미적 가치를 중요시 했던 측면과, 외모, 즉 관상이 사업, 인간관계에서의 성공, 성격과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믿음과 관련되어 쌍꺼풀성형술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McCurdy 1990). 둘째, 미용성형수술의 동기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30세 이상의 경우 주로 결혼상태의 증진

이나 직장적응과 연관된 외적 동기가,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존심의 증대나 주체성의 변화와 같은 내적 동기가 우세하다는 견해(Pertschuk 1991)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주체성과 연관된 동기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세계, 연구를 여성에 국한시킨 이유는 남-여사이의 신체상(body image)의 상이점, 미용성형수술의 수용도 및 사회적 태도의 차이에 따른 수술동기가 달라지는 점(Goin과 Goin 1986; Pruzinsky와 Edgerton 1990)들을 고려한 것이다. 네째,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를 배제시킨 것은, 타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외적 동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아주체성은 청년기에 와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주체성을 형성하고 재조정해나가는 것이라는 견해(Erikson 1968; Douvan과 Adelson 1969)를 감안하여 가능한 대상군의 연령을 한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쌍꺼풀성형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자아주체성척도 전체 점수가 낮았고 하위척도 중 안정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안면성형술을 시행받는 청소년과 성인이 자아개념(self-concept)이 낮다는 견해(Pertschuk와 Whitaker 1982)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쌍꺼풀성형술을 시행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일관된 동질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바꿈으로 자신의 신체자아상을 개선하고 자아 주체성을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안정성은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속에서 일관된 동질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성이 낮은 여성이 쌍꺼풀성형술을 통해 자아주체성을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려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미용성형수술이 개인의 주체성, 신체지각, 사회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외모를 바꿈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Berscheid와 Ganstard 1982).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아주체성의 연구(하형욱 1984; 최영 1986)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는 미용수술을 받으려는 동기가 신경증을

포함한 그들의 정신장애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자존심과 자기상의 개선, 주체성(identity)의 재구성 등(Edgerton과 Knor 1971; Burk등 1987; Goin과 Goin 1988; Pertschuk 1991)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자아주체성은 연령, 교육수준, 장래전망, 동알시의 대상과 생활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서봉연 1975). 본 연구에서 생활사건의 경험 여부에 따른 자아주체성 척도의 점수는 생활사건을 경험한 집단에서 자아주체성 전체 평균 득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하위 척도 별로 나누어 보면 목표지향성, 대인역할기대, 자기 수용, 자기존재의식의 점수가 낮은 반면 독특성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Erikson (1959)은 청년기에서 주체성 혼미의 요인으로 좌절, 친밀한 친교관계의 와해, 이성관계 문제, 시간 전망의 장애와 근면성의 문제를 들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생활변동을 겪은 집단에서 자아 주체성이 낮게 나온 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는 자아주체성이 생활의 변동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사건의 경험에 따른 자아주체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어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배제하여 보았으나, 쌍꺼풀성형술을 시행하려하는 여성에서 대조군에 비해 척도전체 점수와 하위척도 중 안정성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쌍꺼풀성형술을 받으려는 내적 동기와 자아주체성 사이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이 적었고, 대상선정에 있어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병원 방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의를 찾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제외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울증과 낮은 자존심 상태에서 신체적 불만족이 많고(Offman과 Bradley 1992), 불안이 높은 경우 자아주체성이 낮다(최영 1986)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상태가 자아주체성 및 쌍꺼풀성형술의 시행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한 점이다.

미용성형수술 후 신체상과 주체성이 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Wengle 1986), 수술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이 증가하고

자기상과 신체상이 개선된다(Reich 1969; Goin등 1980; Belfer 1982)는 관점에서 향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수술 전-후의 자아주체성을 비교연구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용성형술을 원하는 남성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남-여 사이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미용성형술의 동기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많으므로 동서양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미용을 목적으로 쌍꺼풀성형술을 시행받고자 성형외과를 방문한 미혼 성인여성과 쌍꺼풀성형술을 원하지 않는 대조군의 자아주체성을 Dignan의 자아주체성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쌍꺼풀성형술을 받고자 하는 대상군의 자아주체성 전체점수와 하위척도 중 안정성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자아주체성 척도의 점수는 생활사건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사건을 경험한 군에서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자아주체성 전체점수와 하위척도 중 목표지향성, 대인관계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의 점수가 낮았고, 독특성의 점수는 높았다. 생활사건의 자아주체성 점수에 대한 영향을 통제한 경우에도 쌍꺼풀성형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에서 자아주체성 전체점수와 하위척도 중 안정성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쌍꺼풀성형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에서 자아주체성의 재구성을 시도하려는 내적 동기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 : 쌍꺼풀성형술 · 자아주체성.

REFERENCES

고병학 · 송옥현 · 신운오(1981) :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 : I. 생활사건척도. 신경정신의학 20 : 62-78
 서봉연(1975) : 자아주체성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안재훈 · 김용운 · 백무현 · 김승홍 · 민대홍 · 이영식 · 이철원(1993) : 성형수술환자들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 : 945-

968
 윤근철 · 이윤호 · 김중술(1984) : 다면적 인성검사를 통한 성형외과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고찰.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1 : 35-39
 정규환(1980) : 성형외과환자의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 : 33-39
 최 영(1986) : 신경증적 장애환자들의 자아주체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5 : 606-617
 하형욱(1984) :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주체성발달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3 : 160-166
 한명호 · 권성택(1992) : 쌍꺼풀 수술 시행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9 : 866-870
 한상준 · 안재훈 · 백무현 · 김승홍 · 민대홍 · 이영식 · 이철원(1991) : 성형수술 환자들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8 : 1015-1022
 Akhtar S(1984) : The syndrome of identity diffusion. Am J Psychiatry 141 : 1381-1385
 Adams G(1977) :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 Dev 20 : 217-237
 Belfer ML, Harrison AM, Pillemer FC, Murray JE (1982) : Appearance and the influence of reconstructive Surgery on body image. Clinics in Plastic Surgery 9 : 307-315
 Berscheid E, Ganstad S(1982) : The social psychological implication of facial physical attractiveness. Clin Plast Surg 9 : 289-296
 Brook HE(1971) : Psychiatric assessment of rhinoplasty. Arch Otolaryngol 94 : 51-55
 Burk J, Zelen SL, Terino EO(1987) : More than skin deep. A self consistency approach to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Plast Reconstr Surg 76 : 270-275
 Dignan SMH(1965) :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 815-825
 Douvan E, Andelson J(1969) : The self and identity. Issues in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pp166-172
 Edgerton MT, Jacobson WE, Meyer E(1960) : Surgical-psychiatric study of patients seeking plastic (cosmetic) surgery : Ninety-eight consecutive patients with minimal deformity. Br J Plast Surg 13 : 136-145
 Edgerton MT, Knor NJ(1971) : Motivational pattern of patient seeking cosmetic(esthetic)surgery. Plast

- Reconstr Surg 98 : 551-563
- Erikson EH**(1959) :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ith a historical introduction by David Rapaport. Psychological Issues 1(1)
- Erikson EH**(1968) :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in MK, Burgoyne RW, Goin JM, Staples FR**(1980) : A prospective psychological study of 50 female face-lift patients. Plast Reconstr Surg 65 : 436-442
- Goin MK, Goin JM**(1986) : Psychological effects of aesthetic surgery. Adv psychosom Med 15 : 84-108
- Goin JM, Goin MK**(1988) : Psychological aspects of aesthetic surgery. In Gonzalez-Ulloa M, Meyer R, Smith J, Zaoli G(eds). Aesthetic Plastic Surgery. Piccin Nuovo Libreria, Padova pp9-23
- Hay GG, Heather BB**(1973) : Changes in psychometric test results following cosmetic nasal operations. Br J Psychiatry 122 : 89-90
- Hill G, Silver GA**(1950) : Psychodynamic and esthetic motivations for plastic surgery. Psychosom Med 12 : 345-355
- Kalick SM**(1982) : Clinician, social scientist, and body image. Clin Plast Surg 9 : 379-385
- Kobayashi K, Shirakabe T**(1991) : Blepharoplasty in orientals. Problems in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 : 496-503
- Linn L, Goldman IB**(1949) : Psychiatric observations concerning rhinoplasty. Psychosom Med 11 : 307-315
- Macgregor FC**(1982) : Social and psychological studies of plastic surgery-past, present, and future. Clinics in Plastic Surgery 9(3) : 283-288
- Marcus P**(1984) : Some preliminary psychological observations on narcissism, the cosmetic rhinoplasty patient and the plastic surgeon. Aust NZ Surg 54 : 543-547
- McCurdy JA**(1990) : Cosmetic Surgery of the Asian Face. Thieme Medical Publishers, Inc. New York, pp1-2
- Offman HJ, Bradley SJ**(1992) : Body im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 and its measurement : An overview. Can J Psychiatry 37 : 417-422
- Olley PC**(1974) : Aspects of plastic surgery : Social and psychological sequelae. Br Med J 3 : 322-324
- Pertschuk M**(1991) : Psychosocial considerations in interface surgery. Clinics in Plastic Surgery 18(1) : 11-18
- Pertschuk M, Whitaker LA**(1982) :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craniofacial deformity and surgical reconstruction. Clinics in Plastic Surgery 9 : 306
- Pruzinsky T, Edgerton MT**(1990) : Body image change in cosmetic plastic surgery. In : Cash TF, Pruzinsky T(ed), Body Images :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Reich J**(1969) : The surgery of appearance. Psychological and related aspects. Med J Aust 2 : 5-13
- Wengle HP**(1986) :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critical overview of the literature 1960-1982, Part I. Ann Plast Surg 16 : 435-443